盟。

七

呼約拿軍可共同通牒。

一般東線尚、店間開通 の州、店村間十五里上來二十五 の州、店村間十五里上來二十五 の州、店村間十五里上來二十五

東鐵賃金引入三批의引上の行送の三原中製造の公司を引入東部線が開中東鐵道理事會の公東部線が上層中製造の公里を行います。

元山中民의陳情の 今回行財整理의結果元山党副紀 (大) が1、本 岡商機會頭 5九日学前の 5元 東 常 の 8 元 が 1 元 山 中民 (1) 陳 情

定範圍の分子、 防寒具의不備豆

は、日本のでは、日本の 잇는지구표요

고무신은신용 登 京城箋萊町一丁目八八番地 心朝鮮工口 **지구亚외에 뜨업소 ゼ** 立む ユーム や

復興公債募集頓坐 (無有六日愛) 日本興業銀行 開事彌水氏之來春頭初の倫敦当 倫敦の分頭性日気合の豆石市價 の對計なの報性日気合の豆石市價 可對計なの計了銀典公價募集の 計可なの計了親測日之中假今米 同の引受計三部도の募集の明年 ○三一年十萬留의增收八日司라 市田コ司立右に烏鐵長官『수시 日中(哈府情報)

0 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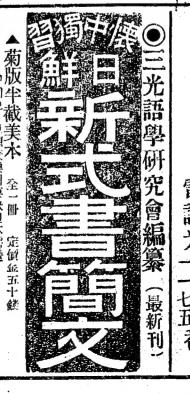
上型片、早台製通り以次及り上が行口、竣工型外径の世 以後十二年間の、竣工智計劃正当鬻手하기豆決定可のたい、新加坡海軍根據地に 行動停止量打電 おおけ、コ張作霖の、全國の對対か、軍事 所業工謨護鮮朝

▲計山博士同夫人(毒瓦斯發明者)日本滯在中21中今月中旬 頭朝鮮通過北京の向望豫定 変京城驛發赴任 長)前任地哈爾賓○尼早司九本高元動氏(全南参與官)同上 十二日楊州郡柴菴面長岩里自 ▲尾崎東拓理事 二十日頃歿波 迁 材 高 A;

帽子與各種學 造生 泰屋 製 帽 店 京城府橋南洞百拾七番。 振孝京城一三四〇三番

割引都賣提供 三光書林

一次目} 分版 ★▲▲ 家日組一般 庭用 庭用 庭用 庭 文文記 文文記 文文記 想交換의要決 ジ本電子本 全一冊 定 文文文文 ▲ A A A 報 依招號 知時期引 金工 文文文文



線の三八日の金通口の行口中に、湾間海底線全通 同 副事務官 一 一 同 事務官 一 同 山日賀 山田直次郎 直進 山田直次郎 直進 田高 部進 草. 秋尾

其他諸般質問業輕便式朝鮮料理特別式朝鮮料理 長

電話光三 四〇(長橋) 安 九七五番

의

の歴

器出宴 入版器, 集好集 長尾 金 一寶堂

本権が終止令の年年の作品不良の一部が終止令の年年の作品である。 案 新

京畿管內自轉車

今日附總督府告示第二五〇號及 第二五一號三岁左肥外如可郵便 局、所為廢止及設置計及中日引 利川郵便所▲位置 京畿道利 川郡邑內面▲廢止 甲山郵便 局▲設置 甲山郵便所▲位置 高▲設置 甲山郵便所▲位置 郵便局、所廢、設

, 技師一名"馬一名 新祖四萬八百二十五 以防事業費 一名 一名 一名 一名 一名 一名 有林鹏查費 按師一名、賜一名、技手 一名、技手

八萬三千二百五十八

湖 四萬五千四百四十三四萬三十四百四十三 技師七名、屬一名、技手 日本海

簡點意加斯航路

定例局部長會議と午後〇九日의定例局部長會議と午後〇時半早已總督總監以下各局部長限備計工總督總監以下各局部長の試計の経験の出席が中諸般政務

初 七萬九千五百二十四一数道線路號查費一名、技手三名

粟、高粱의

限の足がら質施が気を北海洲理本年七月一日早ら向六個月舎期を日本年上が長

江華六駐在所撤廢今般行政整理三因から江華祭祭司管内駐在所外三個の三中松海、河屿、伊恩、三山、西島、水島、駐在所書漁廢守立郡廳の三中郡廟三名厲員三名。淘汰守立京郡島、三山、西島、水山方法院江華田張所の三多少

心尼等官二等 1 部 官 1 部 官

深川傳次郎

黎监,官 總世府事務官

水口

隆三

购年豫算細目

잇

스

면

华

ol

ブ

ス} 投

野武泰

手 船北郎

外務省事務官報

兵滩

自應短長文書日 在用文文間簡鮮

鐵

筆

寫

眞

年度額 三曾句議會可

外日子の前後から

本渡航及歸還

宅の分遊外駆喪

의면간신는신은 **지구張고무신이**

好 評

一十名。 長 本務官一名。 技手图十二名 一十名。 技手图十二名 一十名。 大手图十二名 一十名。 大手图十二名

二萬三千四百四十五毫地關査建分測査要

電自

能話な

戊永元

大田が

《1.1.10] 所有一个的分别是一个1.1.1000 (1.1.1000) 是一个1.1.1000 (1.1.100) 所有一个的分别是一个1.1.1000 (1.1.100) 所有一个的分别是一个1.1.1000 (1.1.100) 所有一个的分别是一个1.1.1000 (1.1.100) 是一个1.1.1000 (1.1.100) 是一个1.1000 (1.1.100) 是一个1.1.1000 (1.1.100) 是一个1.1000 (1.1.100) 是一个1.1.1000 (1.1.100) 是一个1.1000 (1.1.100) 是一个1.1.1000 (1.1.100) 是一个1.1.1000

因から影像者の無用の物質対決

用 理

八種屬 品 / (®) 本理髮器 / (®) 本理髮器 / (®) 本理髮器 / (®) *

器具會 發號組 會 號組 人

サーコ

0

難。

장리식을더

サーマ

三

卫도压

醴泉東拓

人哀話

동김리

0

그의[드로잉/게임]으로마치엇다 明大軍蹴球大勝 立数[7]。」式獻兌限。二六日午後二

十三日夜東京을に나上海豆向包 다는데上海이 서는그곳에 있는西

思計工多期運動美勵針其他進行

關西7A 紳商2

日午後二世寶塚球場에另開戰至 얏는더七 A對二로關西軍이익이 왔다고 横濱外人軍敗東京帝大對海 日六乌卿耛鯢泛【归】人军西渡

午後三時半早已根岸球切列分開 催日父七日十四對三旦豆帝大勝

五大戰球打擊率 [中]

中(早)558 価(慶)456 原(慶)429 圧(県)417 高 松(早)333 久保:(早)294 富岡莊(明)253 中 嶋(早)250 鈴 木(屋)250 永 (屋)250 1921春

谷(變)286

松(早)333 升(早);07 口(早)285 田(明)250 木(黔)250 木(黔)250

田等原沿大砂 院(法)314 川屋 286 澤法)273

球戰은六日午後二時半早己早大 球场에外暴行되父는데紀局二對

對某西學院의第一但野球戰은六

統計數是是

野(慶)222 田(明)200 須(鬼)200 商(慶)200 谷(明)200

의 라마를건너가볼가한나다 라고하면서 설심만한 표정이로 첫집같은수술을 사더라 (사진이리 재력씨)

▲작일밤에는 자정이나 지나서 어느료리집에서 자리집이도 도 라기는길에 종로경찰서 문천에 이밀려 경판을 보고 하는말이 이밀려 장도가무서워서 호자는 보이다다 장도가무서워서 호자는 보스의전에인사동이 버스의전비디를강도에게 베앗기역다하는한성 花)(ハンサモブ似った)(お)中モブ似っ



等前八時樂世建以計一日(餘十一月 元日) 数料 十二月九日(陰 茅村里五條山和陽村面

면 별로남는 것이라고는 이미 더욱급단가를 재앙되고 또디주되는 동력의형 바다가는데도 되(카)질까 오당하야 일단동안 피엄을 하고 있다.

수에고 도확은 물리 가 되었다. 하내 첫 이 불가 되었다. 대 지 만 입 얼 가 되었다. 로 본 기 입 얼 가 되었다.

女子寄宿含る

침입하라다려모



작민이리자라는의발표한조선인위학연구에관한로보인학급본인학급전시 채용한의 사실인대진문학교전시간입고 전문학교전시간입고 하나로서 교수 한의(講義)의 하나로서 교수

조선인의 의학을위하야 조선 인의병을 위하야 한잇는대로 연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환

주소와지엄이업는한원봉〈尹元 청진동보상에서 철도현의자로 중로서에 있지되었다고 窃盗嫌疑一名 의명한

일조(實鐵洞)구십오번디김명일 함시경에 나흐지 말개월가량이 나되는 더아를바리고 간것을발 건하얏는대 아이는즉시 경성부 貫鐵洞が棄兒

極大判二枚掛

一枚特上參圓也

宅 世一月氏潘 別面時十以南 世長楊二宿朴 並岩州日患公 以里郡上陰齊 別自柴午今殷

를 모집 ならまる

한당(成興) 기방법의 이 한당(成興) 기타모드자 게하시 하시 하나 이되면 지난답

디안시다하 이야퇴

공

時のいと 写代社会は四份日司(書 海流金州 強漁() 電源()

지(內東進)이가 얼마컨에 충북 전(內東進)이가 얼마컨에 충북 스캔(內東進)이가 얼마컨에 충북 스퀘)이로부터 사긔죄로보명정 보한바와갓거니와 그사건이 이 되는사를마치고 지난 필일오킨 에일건서류를당청다방망감사 기사를 당하였다며라 모하에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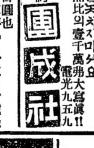
발시산십보장에 시내종로일당 목(雞路一丁目)오십팔번디김청 라(金聖宅)의상염에 철도가 침 가약백원이치의불품을질취하여 가약백원이지의 불품을질취하여 鐘路がお盗 当るる

軍隊毛布

大正十三年十二月日 趙慶元一金九百圓也

発動特別 戍 社





活 關 突 學二 卷 學二 卷 戦逃亡がみ」

蒙'고몽 즉인인원 며스엇이차 나이랑가합칠승사 에평매 대는낫물을줄 지하면방선조부중 자오너홀 로오방디도북 이(思氣低)압 과다 든잇에면 도어치굿은눈 대인것린나 이눈과풍북 며蓋대화 이(配領高)압 (정설의성정일구은진사) 라더허말 은원소호측성정 고리리 本年中에 다 본도로 등 등 진주(音州)에 서 (卷山)이로 음기 게되었다 는 府令) 등 집한 두 곳 이 민의 각 는 병・ 깃배하는 빛이 아래를 한 두 장의 연보로 ੀ 일 작 이 선 한장이 전보로 게임적 보산에 서 각각 총독 총감에 되는 반산에 서 각각 총독 부석면 취임 사공면 운압의 사공면 운압의 사공면 운압의 사용)도인민을 하는것의민을 위기

울피잇는 日山山 어

지하리 리스 차 년 이가를 처시는 건 임상으로 시민일 자한부당의취소를 면볼

호를 보고 지점하고 대용단으로 다반하지 과일반의복임 중인사 보면이로 보와정하 아니바이라 부만일도 장의를살하나라 정대변상실정

退學處分。解

台焼棄む

리잇리된몽교정 (內科醫師)로 가지 (內科醫師)로 (內科醫師)로 전성의학원문학교(京城醫事)의 전성의학원문학교(京城醫事)의 교과 서종이 하나도서 채용되는 교과 서종이 하나도서 채용되는 모다하는 이미보도 하였거나와 인는 편창을 연구하야 보표한 기조선식물(食物)이 위학이미 기조선식물(한)의 기조선식물(한)의 기조선식물(한)의 기조선식물(한)의 기조선식물(항)의 기조선식물(항)의 기조선식물(항)의 기조선식물(항)의 기조선식물(항)의 기조선(하는 기조선)의 기조선(항)의 기조선(항)의

** (內科함師)로 (總督 기의사(內科함師)로 (李殿澤) (의작년가 이 인하 조선3년의 이미 (李殿澤) (의작년가 이 미보도 하여기의 보고 (주殿澤) 의 하나 보지 해보되는 이미보도 하여기의 보고 (주殿澤) 의 하나 보지 해보되는 이미보도 하여기의 보고 (주殿澤) 의 이미보도 하여기의 보고 (주민) 의 (학교 (주민) 의 (학교

지보한 종도 사진단(吉田) 순사 의 눈은 빼고 다리 난효자도 (表于河)의 철도는 아주도 작지 못하지 가 지의 방을 제속 중이라하며 그범인 다시 당하다 항을 하다하며 총목부병원에 있스며 등을 하다하며 총목부병원에 있스며등을 다시 볼 수업겠다는데 그 등이 안녕한 보기 나는데 그는 된 이 나 있고 로 관리이나 맛고 로 관리리라 다리 가 되었다. 被訴习芮東進

원이출동도력한결과동사시장에 진화하였는대 인가의 손해는업

大活劇荒武者一騎至五卷 十二月九日早己新樂落成大の米國월リむ、平今へ配大作別封場 | 平字 | 一會 | 欣京城

京城府溪芹洞九

四番地

奶水水路 **岩明全部の早** 見州丘め

(P) 비기당의 합치되말 모양이다

今年李十 与可其个日子

(사진은 첫제호)

止式發表と明年の

실일오후네시십칠분에지원신동 다천되(東豆川縣)을떠난지원신동 데일벡이렬차가덕정(德学)으로 향하야 진행중에 사십여প되여 보이는 남자한명이 무참하치어 주었는데 과실로 치어죽으次이 마하며 주소청명의 묘사중이라

수 역동산경찰서에인치되용(다리라 무 음에 트리고집 한하라다가발각되 무 음에 트리고집 한하라다가발각되 京元線の轢死

五二 送十 料鍵鍵 二一三 经几级 牛命學七病 實効散る服なりの

感胃七年母金

유건이로 그부근에는 매우상의 무선 보는 그 위치 보는 그 위치 바침을 강구층 이 문학 보다는 그 지원보로이 기계을 당한 보다는 그 지원보로이 기계을 다 보다는 이 사내 모 이 사건이로 이 하야 이 반에 동안 되다는 이 이 반에 동안 되는 이 이 반에 동안 되는 이 이 반에 동안 기계를 당한 기계를 당한

馬夫를銃殺하五

公金奪取並巡査

미

왕

合けをはらいがっ

町や 川舎型のである 日

ココニ

1 의명상 는

무역요』하고말닷마다우, 무대로 를쓸대요사회와 지 리고커합니다 지금의 울 개고리와 목마찬가지인점 의 등에 우다한 이 등에 무대한 이 등에 무대한 무대한 무대한 무대한 기계 이 등에 무대한 기계 인접

의 하고말곳마다우습을 다래도지급부러는될수잇 름을내며사회와 좀버물 하나다 지급은 응물안의 장막다 지금은 응물안의

지품을 떠나외롭고 쓸

첫권 들고 미미암장 ◇진명되학교교사 선 0

0

이 어떤아이 는조선(朝夕)의 대중인일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이에게 간간있습니다 그런것은 이의열기를 보는경우에 주의하지 살로 보는경우에 주의하지 보면 아무리 한후에 주의하지 보면 오류분이 다음 사이를 보면 오류분이다 그리고를 보면 오류분이다는 그리고를 보면 오류분이다는 기계 심술

大元

아

위

생

되기 하아두는것이

집도잇고아이들이작

것이 무엇이오 그림무령합 단회는 그만누는것이 좃소

자유 기가하지못하고 나에게 말할지 기가하지못하고 나에게 말할지 기가하지못하고 나에게 말할지

でする。 大型語ののではすけり 「ひょられず 大型型の市日的

기를위하기 어린 당한것입니다

なけ おこま 真好の 上対金

가의사가인의

일성

18

주이 바임도한다. 후에 바임도한다. 후에 바임도한다. 후에 바임도한다. 후에 바임도한다.

対リな。

대데로귀핀지다

の即名次の以外

은 자라 라지 학창 명주나비단의 모다 동물청으로 왕옷감인고로 모직물과 별모히 다를것이업승니다그램하지마는

목을 된지고만증 모든것이 자유 함치 못하여 멋린회석(資席)에 아조사회와는 등진사람 마찬가 가보지도 못하고

冬이로비비기: 에 두가를 치리 장다나 벌어 김 것러쥐 히쉬이 다쉬 어주 입 얇 보지안으면 잘못될때가 만습니다 어린아이는 비상히 그주위사정의 만히바다 모느것이 말라지는 것임으로 아홉이러날

어빨리 잘바집니다 그리한주 이 다시빨아서 살人대에되기 이러 발리든지 당생을드리든 지하나다 지하나다 전취 에대한크리크일보이 먼커탈심한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었습니다

以게도무명과마포와모시등

도 생재 시물을 쓰라면 차라리재(灰) 물을 거취 위 세는것이 조흥니다 그리하고살물(藍)에에 속안에 위 물빗그로 나오면 그나온무분인 자기중의산소(酸素)와작용(作

다 그림으로이 이시 이야 한구

対ない山水

ない山水景)小色ないかれるのようでは、山水景)小色ないまっている。

公当の个小(存験)のではいい

도한종류에따라 복잡 합의로이 마는데일 우리가 이에대하야주의할 수리가 이에대하야주 의할 때에 새옷감이아니 만양재人물(守性習達)을쓰지막

양재人불(苛性習達)을쓰지말한지의 우리가 이에대하야주 발대에 새옷감이아니다하야주

방

안

에

突
か
会

0

◇우리도취미를알 ◇커입논이로도되

. 分二 吴谷니다 그리고무

마이로 두다리면 아니딤니다 막것을말릴때에도손으로비트 데쥐 5 사면금(線)이생기고문이 있는 사이기 교문 이 있는 옷에는 무의가 처여서 と甘山 바는법이 있지마는 이것으자 또우리의 일반가당에서 해하

를 푸러 쉬빨지마는 물니다도 종년집게하아도 및 아니됩니다 무색옷은 없 아니됩니다 무색옷은 없 서 은 뜨 도 등을 살 수 양 거 관 앱 비 재 우 계 때 누 물 면 치 보

다가 [초산/(초)를조금라서잔 먹면 빗갈(光澤)이 조코명주리면 빗갈(光澤)이 조코명주 무건한불에탈근탈근하도록

綱糸)로处구두버선(八造 『목도리』『장갑기가를것이 찬 물(冷水)하다가별되지『크리 당』법이로엘고보통때보다리 양산 (洋傘)등속으실人대 서 예약가지고 따뜻한물(溫) 에축인단에 비누를들진하물(溫) 하루인단니아들조금라서 가른것을 적거서 요려주는것도 물에당 어디 가든것을 적거서 요려주는것도 되는데다가 정의수깔로 세수 가대단히 보하고 소화도괄의 에 발근발근 사이의 사이의 보이는 지기 및 이 등 지기 및

中人的自己 不到可以可

이과다에

画か

들어갈수가 있수!

工

면색

히

一世

일이한물, 조건말에

의빠는법

그 5

을 기숙사에서 는학생들이 자기들의 식비중에서 쌀과나의 특하며 두엇다가 그돈을 이번 크리스마쓰에 귀리구제(觸解數이번)하고 한 사는 런 당한 나라 하고 한 사는 건 한 가는 건 한 기를 가고 말하고 말하다.

리가

옥매의집개가

무무서워서

3

立つ 量均の分

=

計의

ブ

园

中國法世田口

る当対ユ

지금 등 고기를 더이다니

주그대로 먹이 당하하다.

소교기는포、그외에 기름진교기 아라 말투이 물투이 출가든것이 조치만 이에는 말투이 출가든것이 조치만 다니다 가든것도다조치 나리 되나다그리고차(茶)가든것이 자다요 上不多少是上刻口の 기실을 벗기어려운

라 美

(風長)이 단장이되야 영구히그런리를 향유한다는 일종의이상 스러운 청년단데가 이게상에나 芸館) 은ユン 화재

貝債豆困難が

의원(仁川) 한유청단회(東勇青 年會)라하면인원서 가장오랜륵 작물가줫스며 운동제의 패권을 대단권에 성턴사업에 실패로 어 느 개인에게 수백원의 『빗을리 지게되었었다 그후 이『빗을리 장금권의 영유가업성(이로 간 의정신은조금도업지

중단의를하면소나그래도그만시킬을 다갑지 못하면소는대 채권자의 한사람 참대원(張泰元)이란사 장인수(張仁秀) 씨의 가산을차 안(亳押)하는 최후수단 음贤습 흥리해가빗는장취(張錫佑)外 등방문하고 원기차압 사건의관 기한자에한 원발등보고하고 무 순조후도리를 지도하야 주기를 당디책임자로서 부채를 판성

다하는 말심입니다그러의

『剁二門皆為的人以合文が 出

호에게는 그릴듯하게 듯기가쉬 완료이었다 정보는 거의눈쌀을 집하라라하며 『그리면 당신이 창배와 질호

B

명희는 갑작히 울기를시작하 당승니다 가 깃버하는일이면 무엇이든지 이와가리 정호는 아조아모틥 려도업시발하였다 이리하야 부부라는약속은 어 어린무사하게 성립되었다 그리 나정호는 이디스일을 생각지아 나할수업성다 이호로 과연오래 도록 무사하게평란하게 지나게 도록 무사하게평란하게 지나게 그러나정호는 아니다 자미업일이 평란하게나갈것이다 하고 의만이

召をおの分と 天舎小引引

一一門。另 的知外以即引出日

丕卓美髪料 라

外월总보내게

상

◇分砂分豆岩 만드는법과

기外지는 어른과구별

富

에

어

에

먹일것

도막취미하고 기

分파 と次 0 可 コ 만 드

한테 우유 면소화하나 등 는것을먹이도록하십

다 수을하야 커그국물만먹이 느것도 작을하야 커그국물만먹이 느것도 만나다 어린아이가 만두살을 내며 다 아는 만네살이되기까지는 우에 나무 만네살이되기까지는 우에 그리자지 나다 어린아이가 만두살이 만차차 어른의 음식파가리 다른한 만네살이되기까지는 기록한 그러한음식들을 머 컨에벅지 말음식 곱먹

다려식 계포로두고 다시 련합 런명단데를 정칭할리이데 동단 카층데이조의목덩을보면 정된단이되장찰관현의명령에목 종하야 도란예방장계 범진 제포와화재급기라비상사변에

그단체의임

회원의책임

스러리 운를

40991号の分 (京城朝鮮酒醸造品 第一回品評會) 1240982季千八州 784年 第一回品評 치못하면 차압당하는 것도할 수업지오 아모리 업다하기로 그회원중에서 그만한 돈을껮 내지못하겠소조선사람으뉴교 도덕을오해하고한집안에재산 가가잇스면그것만밋고물고려 으려하고자주독립(自主獨立)

이 어 지수 이 어 지는이 가지 못하면 있어가 사장을 하야다시일주일 만기를 한호구수혐의 한질과간 부네사람이 인천시내의 명망가 이요 재산가 이 며청년운동의만 의로이래 생긴한 부댓김을당하 지난의 기최후기한이 지난말될

醸造品評會

역주십시오 김창배란말은 다시 안토록……그가 일주이 이 세상 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아조이 귀

여고 커입니다』 이고 커입니다』

『깃버하실것인정한일이지오』 『가름귀족의따님이아니면 안 된다거나당회의 근본이더립다거 안 1그러나 당신의 8 머님께서들 이시면 엇더케 발생하실는지오 악회 그갑정치를하면들

刻目

奇人

奇線

도걱정

『커의낫분일이란것을 인제는

근접도 잇지마는 가을이지나가 가만처마는 그것만다도 악리조 **山内島村の岩田外**岩

1 선사를하고 그치는일이잇승디스린관장을 식하여 어린애모 이스린관장을 식하여 어린애모 (月桂)가를 것도 방안에 드려 보통가면이로는 명집이 된것가 된 보통가면이로는 정제상 관계로 보통가면이로는 정제상 관계로 만입기리라고 왓 한송이도업시다 만입기리라고 왓 한송이도업시다 기 하기 어려운 일이올시다 기 나는 것은 너무 무미한일인을 **화분** 5 동叶(冬梅) 월刀 가화 혹은생회

합니다 아이들이만한 집에서는

방에요자서 복리를 나리게하면 그것이 얼마나 자미스립고즐거 아일이 켓습닛가?

업론번최하게 방안에 주옥느러 다는집이라도 삼출장·회류의거 다는집이라도 삼출장·회류의거 대는집이라도 삼출장·회류의거 10公台工计 二외에도 上京次の10公台工计 二외에도 上京次の

마당の화계를보호되었속이를

도또한너무싱거워요 영단집에 는가보면 책상우에 다가별히별 점상급상한적라고이다느려노형 정보다로 한 옷한송이가 바 장무게하고 드리오는 손님의는 지무게하고 드리오는 손님의는 이용즐겁게할것이 보다로 가장사람을 지무게하고 드리오는 손님의는 이용즐겁게할것이 보다로 가장사람을 지무게하고 드리오는 손님의는

우리도종남의나라사람들과기리 맞송이도 교자보로 그림장도사 이고 너무도 쓸쓸합니 外場の以上なめ外

早名 云山外川昌山中意云

면 어디남어날수가잇나』이것이 보통부리들의 말이올시다 그리 나어린아이가 키안나홀만한 곳 이렇다지 그치지안코 무슨맛이던 이 늘보는일이면 오히려심상하 이 늘보는일이면 오히려심상하 이 늘보는일이면 오히려심상하 다시 생각할것이올시다 요새가를

石計以下 『日彩市民人田 第二外型学市 次台以下?』 三四、 그것만으불으시자 안토록 하 命音 대개……....하고말하다가 다시 『당신파가를 훌륭한어른의안해 가될수업는사람인것을아시겠지 오우등하고 고취말하였다

『아ー나오 그런커볼했한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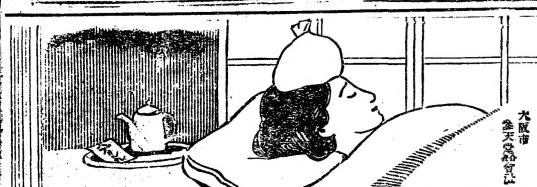
용다더라 중 雪中可自殺四不

호고실기가 등능한 대답불합의 토라왓다는데 사회사업으로 인 인천의 수치이며 아울니조선청 단천데의 수치이며 아울니조선청 마나로 우리창년의 만이생각할 문데라고 그한간부는 말하더라 (6년건)

지 아니라면한된다고배웠다 은 반지는 항상[정작하게하는 10년 도 발하8십니다 정 이 나는 하고 말하8십니다 정

얼 晋

거칠지안는 四日員 0



利 当の 吐次 スス 質任分は立上方

저울票의 의



 얼필이 サール 美号増から日粉950 此子라子美身ヨコー 効力 거칠지안케하는 잇 구 本 라 店 부 謹 洗 의 粉

三五五八六七八三一九七一五一 三三四二九〇六七六九六四八〇

되七光榮皇家村立の七中日山中

后

宮

用

品

第

期

三 ペッド 0 円 THE R

東学 今日二十五一个号

大田・『『温泉の一年の一年代 幣錢